

# 해외의약뉴스

높은 에스트로겐 수치와 당뇨는 치매 위험을 증가시킨다.

의약품정책연구소

## 개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노년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으면서 당뇨가 있는 경우 치매 위험은 더욱 증가되었다. 당뇨와 치매가 있는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당뇨만 있는 여성에 비해 약 70% 높았다.

## 키워드

에스트로겐, 당뇨, 치매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노년여성이 치매의 위험이 더 크며, 특히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으면서 당뇨가 있는 노년여성의 경우 치매의 위험이 더 커진다.

프랑스 연구진은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5,600명 이상을 포함한 대규모 연구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에스트로겐 수치를 증가시키는 호르몬대체요법과 약복용을 하지 않고 치매 증세가 없는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수치를 측정하였다.

4년 후 연구진들은 치매 증세가 없는 543명의 여성과 치매를 진단받은 132명의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수치를 연구 시작 시의 에스트로겐 수치와 비교하는 추적관찰을 실시하였으며, 당뇨, 고혈압 및 기타 심장질환 등 치매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위험요인들을 고려하였다.

연구진들은 다른 위험요인들을 고려한 후에도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여성의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으며, 조사결과는 1월 29일자 온라인 신경학회지에 게재되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으면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치매의 위험은 더욱 증가되었다. 당뇨와 치매가 있는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는 당뇨만 있는 여성에 비해 약 70% 높았다.

연구진들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으면서 당뇨가 있는 여성을 치매 위험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초고도 위험군으로 결론 내렸다.

Pierre-Yves Scarabin박사<sup>1)</sup>는 “우리는 내성에스트로겐의 높은 수치와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지 않은 노년여성의 치매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1) Frenc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Medical Research 연구소장

David Carr 박사(워싱턴 의과대학 교수)는 “에스트로겐 수치는 폐경기 이후 낮아지지만, 체지방량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높은 여성들도 있다.”고 전했다.

Scarabin 박사는 “우리는 오랫동안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건강, 특히 심장과 뇌에 좋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 및 다른 데이터들은 우리가 그간 믿었던 것에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비록 이번 연구로 에스트로겐 수치와 치매위험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아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았다.

미국 뉴욕 Mount Sinai 병원 인지건강센터 소장인 Sam Gandy 박사는 “지난 5년 동안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전 여성의 높은 에스트로겐 수치는 치매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요소로 나이를 추가하게 되면, 높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치매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Carr 박사는 이것을 ‘에스트로겐 요법의 결정적 윈도우(critical window of estrogen therapy)’<sup>2)</sup>라고 하였다.

이어 Carr 박사는 “그러나 이번 연구는 ‘결정적 윈도우’가 닫혔을 경우, 높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가진 여성이 더 높은 치매 위험을 가지며,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으면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치매의 위험이 더 증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Scarabin 박사는 “이번 연구는 호르몬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투약하는 여성들에게 투약을 중단하라고 권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2) 폐경 초기에 호르몬 요법 시작 시 보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 시기를 지난 폐경 후기에는 호르몬 요법을 하더라도 보호 효과가 없으며, 실제로는 오히려 그 위험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대한임상노인학회, 2011)

■ 원문정보 ■

<http://consumer.healthday.com/senior-citizen-information-31/misc-aging-news-10/high-estrogen-levels-plus-diabetes-may-boost-dementia-risk-684324.html>